

# 새로 나온 詩集

## 잘가라 내 청춘

이상희 지음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詩作 활동을 시작한 젊은 여류의 첫시집. '욕망과 절망'이라는 보편적이고 익숙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같이 익숙한 주제에 새 생명을 부여하는 상상력의 공간이 개성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데뷔작 「바느질」을 비롯해 모두 60여편의 작품을 실고 권말에 평론가 이남호의 해설을 붙였다.

민음사 / A5신 / 84면 / 2000원

## 심판처럼 두려운 사랑

김영승 · 장정일 지음

「반성」으로 '외설시' 시비를 일으켰던 김영승과 「햄버거에 대한 명상」으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던 장정일, 두 재기발랄한 젊은 시인의 신작시를 한데 모은 합동시집. 80년대의 한국시단에서 가장 화려한 각광을 받았던 두 시인의 시세계를 한권에 병치시킴으로써 그들의 相似性과 변별성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책나무 / A5신 / 126면 / 2000원

## 안경 너머 지평선이 보인다

권태현 외 지음

대구지역 시인들이 중심으로 팜플렛형태의 '통신문학운동'을 표방해온 '國詩' 동인이 「잠시 나가본 세상」(1985) 이후 4년만에 펴낸 세번째 동인지. 강남욱, 권태현, 김상윤, 김완준, 박상봉, 백창수, 이정하 동인의 작품 60여편을 한데 묶었다. 10년동안 '시의 생활화 메시지'를 펴내는데 주력해온 국시동인의 문학적, 인간적 결집력을 느낄 수 있다.

책나무 / A5신 / 136면 / 2000원

## 통일벼

성기각 지음

80년대 시단의 한 특징으로 지적되는 '현관함'과는 무관하게 맑고 건강한 서정 속에 농촌 공동체적 세계를 즐겨 그려온 성기각의 첫시집. 「된장」 「고추」 「오디」 「물꼬」 「우영」 등 고집스러운 정도로 농촌에 그 문학적 토양을 두고 있는 작품 80여편을 모두 5부로 나누어 묶었다. 발문에서 동료시인 정일근은 성기각의 시세계를 일러 '퇴비의 시학'으로 비유하고 있다.

열음사 / A5신 / 144면 / 2000원

## 얇는 푸른 숲

구영주 지음

「호미날 쟁길날」 「鐘, 그 진동향아리여」 등을 통해 우리 전래의 민속과 문화재, 민예품의 아름다움을 탁월하게 묘사해냈던 여류시인의 제6시집. 주로 조선조 여인들의 삶과 애환을 소재 삼아 "사라져가는 것들의 다시 돌아와 주지 않을 것 같은 안타까움"을 예스러운 시어와 말투 속에 그리고 있다.

오상 / A5신 / 176면 / 2500원

## 안개 속으로

孫基燮 지음

현직 외과의사로서 「한국문학」 신인상을 통해 시단에 나온 이래 「현신」 「고개 위에서」 등을 상재한 바 있는 시인의 제4시집. 40여년의 의사체험에 뿌리를 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주조음으로 깔려 있으며, 나아가 일상에서의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진솔하게 토로되기도 한다.

시문학사 / A5신 / 122면 / 2000원

## 통제구역

임현영 엮음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근무하는, '일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씌어진 작품들을 가려 뽑은 노동시 앤솔로지. "모집공고 더덕더덕 붙여진 / 공단 정류장 부근에서 / 전망있는 직종을 / 밝은 미래를 찾는다" ("새 직업을 찾아서") 등에서 보는 것 같은 노동자 특유의 현장 체험이 모두 3부로 나누어 펼쳐진다.

산하 / A5신 / 226면 / 2500원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황지우 외 지음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가로막는 부정의한 권력에 대해 거부와 폭로의 목소리를 던지는 정치풍자시 모음. 고은, 김남주, 김지하 등에서 김영현, 황지우, 박노해, 이산하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45명 53편의 작품을 3부로 묶어 정치에 대한 현단계 우리 시문학의 인식과 대응양상을 살필 수 있게 했다.

黃土 / A5신 / 172면 / 2500원

## 유치찬란

구상 글 · 중광 그림

시인 구상과 禪畫家 중광이 3년여에 걸쳐

「현대시학」 등의 잡지에 연작으로 발표했던 시와 그림을 한편의 책에 담았다. 연재 당시의 原題는 「童心抄」로서, 소유와 이해관계에 휩쓸려 복세를 떠는 세상에서 동심의 순진성을 애써 간직하고자 하는 두 藝人의 '유치찬란'이 정감있게 다가오는 컬러판 시화집.

삼성출판사 / A5변형 / 138면 / 4500원

## 다시 불러보는 벗들

박선옥 지음

80년 5월의 '광주'를 역사적 原체험으로 삼아 그 역사성을 풍부한 서정성 속에 담은 60년대産 젊은 시인의 제2시집. 우리 문학사의 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지향적 서정성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특유의 건강함과 시적 활력이 돋보이는 작품 60여편을 모두 5부로 나눠 실고, 평론가 이재현의 발문을 덧붙였다.

실천문학사 / A5신 / 178면 / 2000원

## 淸別

洪海里 지음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진리를 향한 虛心"으로 그 시세계가 규정되고 있는 시인의, 「대추꽃 초록빛」(1987)에 이은 제8시집. 모두 3부로 나눈 가운데 제1부에는 보길도를 비롯한 남해안의 섬과 바다를 여행하며 쓴 기행시 30편을, 2부에는 일련의 '꽃시'를, 그리고 3부에는 시인 자신의 자전적 일상을 담은 연작시 「우이동일지」를 실었다.

동천사 / A5신 / 150면 / 2500원

## 시국에 대하여

조성래 지음

부산에서 간행되는 무크 「지평」 제3집에 「카수 김수희」 등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교사시인'의 첫시집. "거덜난 젊음의 허한 꿈" ("그렇게 우리, 가포본동에서")으로 표현되는 상처난 젊음의 좌절을 그림으로써, 그 젊음의 욕망들을 좌절시킨 세계의 본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열음사 / A5신 / 112면 / 2000원

## 사랑을 위하여

김춘수 외 지음

전국 중 · 고교 교사 459명에게 보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한국대표시 124편을 사진과 함께 수록한 책. 김소월, 윤동주, 서정주 등에

서 김광규, 김용택, 박노해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74명의 작품이 실려 있다.

해외로가는길 / A5변형 / 154면 / 3700원

## 밤을 건너며

全元範 지음

동시와 시조시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전원범교수(광주교대)의 제5시집.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80년대 중반 이후의 시대적 배경 속에 우수어린 비극적 세계인식을 담은 작품 60여편을 모두 3부로 나누어 묶었다. 시의 형식에서나 정서에서 결코 무모한 법이 없는 온건함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과공간사 / A5신 / 126면 / 2000원

## 자유인 4

李周泳 지음

"정말이지 나는 詩人이 / 되고 싶지 않았다" ("詩人")고 고백하면서도 시쓰기의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해 꾸준한 詩作 활동을 보여온 전직在美부동산중개업자 이주영의 시집. 주로 미국 체재경험을 소재로 한 작품 100여편을 '사자의 꿈' 및 '서귀포 가는 길'의 2부로 묶었다. 권말에 市井에 떠도는 작자미상의 이야기들을 정리한 '쇄설'을 덧붙여 흥미롭다.

평발 / A5신 / 160면 / 2500원

## 짧은 사랑 긴 그리움

손동연 지음

한국현대시의 명작들 가운데서 6행 이하의 單詩들만 모아 엮은 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정현종의 「섬」을 비롯해 강우식, 기형도, 김남조, 김명수, 김종삼, 박남철, 서정윤, 신달자, 윤성근, 이성복, 정호승, 황학주 등 140여 현대시인의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타임기획 / A5신 / 164면 / 2000원

## 세월의 거지

김갑수 지음

1984년 「실천문학」 신인시선집 「시여 무기여」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단에 나온 이래 부조리한 현실에서 겪는 절망과 그 절망을 디디려는 순수한 갈망을 노래해온 젊은 시인의 첫시집. 얼핏 개인적 체험의 단순한 고백처럼 보이면서도, 그 개인적 체험을 집단무의식의 세계로 이끄는 시편 70여편을 한데 묶었다.

문학과지성사 / A5신 / 126면 / 2000원